

신안군, 드론으로 벌씨 뿌려 노동력 절감

드론 활용 벼농사 드론 직파 현장 연시회 개최 최대 120만원/ha 생산비 ↓ ...탄소배출 감소도

신안군은 지난 21일 드론을 이용한 벼 직파 현장 연시회를 개최하고 파종, 시비, 잡초, 병해충방제 등 벼농사에서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직파재배에 대한 생동감 있는 현장 기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연시회는 신안군의 '드론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의 참여 농가들이 벼 직파재배 신기술을 투입하고 파종 시기에 맞춰 첫 현장 연시회를 추진했다.

벼농사에 있어 드론 직파는 드론

을 이용하여 벌씨를 직접 파종하는 기술로 기존 이앙재배의 못자리와 모내기 작업을 생략하고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여 최대 120만원/ha까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고, 탄소 배출량도 32%까지 줄일 수 있어 최근 드론을 이용한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다.

신안군은 이번 시범사업과 연시회를 시작으로 벌씨 파종은 물론 비료주기, 병해충 방제 등 주요 농작업에도 드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용 드론의 확대 보급과 함께 드론 활용기술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최근 농작업에 드론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벼농사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안=이덕주기자



목포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정식 개관

목포시 고하도에 위치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류태철)이 25일 개관한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은 지난 21일 개관할 예정이었으나 내부직원 중 코로나19 밀접접촉자가 발생함에 따라 정식 개관일을 25일 9시 30분으로 변경했다.

총사업비 473억원이 투입돼 건립된 자원관은 부지면적 9만4,116㎡에 건축연면적 1만721㎡로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구성됐다.

자원관은 동식물 표본, 유전자원 등 350만점 이상의 생물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수장시설과 다양한 연구시설

을 갖추고 있으며, 어린이체험실, 해양생물·포유류 등 500여종 1,000여점을 전시하는 상설전시실 등도 조성되어 교육체험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매주 월요일이 휴관일인 가운데 입장료는 성인 2천원, 청소년과 어린이 1천원이며 단체는 50%를 감면한다. 목포시민은 50%, 그린카드소지자는 본인 30%, 다자녀가정은 전원 50% 할인된다. 만 4세 이하, 만 65세 이상, 장애인 포함 보호인 1인, 국가 독립유공자, 자원관 회원 등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김정환기자

목포시, 하당 롯데마트 일대 노상주차장 조성

목포시가 하당 롯데마트 주변 일대 원형도로를 대폭 개선한다.

시는 롯데마트 일대 원형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노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롯데마트 주변은 도로변 정주차로 인해 교통흐름에 지장이 초래되고, 상

가 주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다.

원형도로를 정비해 주차면 95면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인 이번 사업에는 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올해 6월 준공이 목표다.

목포=박정수기자



전동평 영암군수, 도포 멜론농가 농번기 일손돕기 현장 찾아 격려

전동평 영암군수는 지난 5월 24일 전라남도 자치행정국 직원 50여명이 참여한 도포면 멜론 재배 농가 일손돕기 현장을 찾아 격려했다.

이번 농촌 일손돕기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농촌의 인력난이 심화되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으며, 도포면에 위치한 멜론농가 하우스(6동, 4,871㎡)에서 멜론 지지대 작업을 수행하였다.

영암군은 금년 들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외국인 인력 수급이 불안정함에 따라 더욱 심해져가는 농촌 인력 부족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난 10일 농번기철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군청과 11개 읍·면에 농촌인력 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역내 인력 수요 및 공급현

황을 파악하여 대처하고 있다.

또한 관내 유관기관에서도 일손 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농어촌공사 영암지사에서 25일 영암읍 농가를 찾아 실시하는 고추 지지대 작업을 시작으로 28일에는 NH농협은행 영암군지부에서 일손 돕기를 실시한다. 군부대와 영암축협 그리고 국립공원 관리공단도 6월 초순에 일손 돕기에 참여하기로 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이종고를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무안군,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 '호응'

방제복·보안경, 안전마스크 제공...안전사고 사전 예방

무안군은 5월 농번기를 맞아 눈병, 피부장애 등 농약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농약 안전사용 장비를 농업인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는 공인 시험연구기관에서 성능을 인정받은 우수한 제품이며, 방제복 1개, 보안경 1개, 안전마스크 3개로 구성되어 있다.

군은 사업비 1억 6300만원을 투

입해 구입한 농약 안전사용 장비 3,654세트를 각 농가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산 군수는 "안전사용 장비가 농약으로 인한 중독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기후변화 늦추자" 함평군, 2050탄소중립 동참

함평군은 25일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공동으로 주최, 온라인으로 진행된 '탄소중립 실천 특별세션'에 참여하여 국내 243개 모든 지자체들과 함께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은 지구 온도 상승을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산림 등 탄소흡수원을 늘려서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작년 10월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함평군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노력에 동참하게 된다.

함평군은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함평=김광훈기자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장학증서 수여식

영광군 인재육성위원회(위원장 김준성)는 지난 21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 장학증서는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초·중·고등학생과 우수교사는 학교장이 전수하고, 대학생은 위원장이 직접 전달하여 격려하였으며, 이날 학교수업 등으로 수여식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는 가족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였다.

이번 영광군 인재육성장학금은 4월 1일부터 4월 21일(21일간)까지 5개분야(학업우수, 육당골인재, 예체능, 복지, 우수교사)에 대해 학교 및 읍면을 통해 장학금 신청을 접수받아,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분야별로 선발 우선순위에 따라 인재육성 실무위원회를 거쳐 최종 187명(초22, 중44, 고49, 대59, 우수교사13)이 선발되었으며 장학금 지원규모는 약 2억원이다.

영광=서희권기자

2021년 완도 해양치유산업화 원년

해양치유, 깨끗한 해양환경과 다양한 해양자원을 이용해 몸과 마음 치유하는 건강증진활동

해양치유산업 완도군이 선도합니다!